전문역량과 미래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한 서비스 향상

보도자료 Press Release

대구기상지청

배포일시	2017. 1. 23.(월) 10:00 (총 10매)	보도시점	즉 시		
담당부서	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	담 당 자	과 장 최두수 장기예보관 시미정	전화번호	053- 952-0366 070-7850-2223

3개월전망(2017년 2월~4월)

[기 온] 평년보다 높겠으나, 2월과 3월에는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

[강수량] 2월과 3월에는 평년보다 적겠으나,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음

□ **(2월)**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**기온 변화가 크겠음**

(월평균기온)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

(월강수량) 평년보다 적겠음

□ **(3월)**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, **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때가 있겠음**

(월평균기온) 평년보다 높겠음

(월강수량)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

□ **(4월)**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,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**있겠음**

(월평균기온) 평년보다 높겠음

(월강수량) 평년과 비슷하겠음

□ **(엘니뇨/라니냐)** 엘니뇨·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**중립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**

[3개월전망(2017년 2월~4월) 요약]

※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

기간 / 요소	2월		3월		4월	
	평년	평년 비슷 범위	평년	평년 비슷 범위	평년	평년 비슷 범위
평균기온	1.5℃	-0.7 ~ 0.7℃	6.2℃	-0.5 ~ 0.5℃	12.6℃	-0.4 ~ 0.4℃
강수량	31.8㎜	70 ~ 130%	50.6㎜	85 ~ 115%	67.9㎜	85 ~ 115%

※ 평년기간 : 1981년~2010년

※ 강수량 전망의 '평년 비슷' 범위는 평년기간 중 발생한 극값을 제외하고 산출되었습니다.

※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

확률(낮음(적음) : 비슷 : 높음(많음))	해 설
높음(많음) 확률이 50%이상	평년보다 높음(많음)
(20:40:40)	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(많음)
비슷 확률이 50%이상	평년과 비슷
(40:30:30) (30:40:30) (30:30:40)	
(40:40:20)	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(적음)
낮음(적음) 확률이 50%이상	평년보다 낮음(적음)

【 알림 】

○ 3개월전망은 "기상청 누리집→날씨→특보·예보→3개월전망"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다음 3개월전망은 2017년 2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

첨부 1	최근 날씨 동향(2016년 11월 1일~2017년 1월 19일)

○ 11월

- 기온은 7.8℃로 평년(7.5℃)과 비슷했으며(편차 +0.3℃), 강수량은 24.2㎜로 평년(38.7㎜)보다 적었음(평년비 58%).
- [기온]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으면서 대구·경북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였음. 특히, 우리나라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간의 세력 다툼으로 기온 변화가 컸으며, 북쪽의 한기가 주기적으로 유입되면서 세 차례(1~4일, 8~10일, 23~27일) 큰 추위가 발생하였음. 한편, 11월 중반에는 우리나라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날이 많았음.
- [강수량]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어 대구·경북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음. 18일에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, 26일에는 우리나라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눈과 비가 내렸음.

○ 12월

- 기온은 3.4℃로 평년(1.6℃)보다 높았으며(편차 +1.8℃), 강수량은 51.5㎜로 평년(20.5㎜)보다 많았음(평년비 248%).
- [기온] 전반에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 변화가 컸으며, 후반에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. 특히, 17～22일에 대구·경북 평균기온이 6.5℃로 평년(1.2℃)보다 5.3℃높아 3월 기온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, 22일에는 최고기온 최고 및 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기록한 곳이 많았음.
- [강수량] 21~22일에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, 12월 대구·경북 강수량이 1973년 이래 최다 3위를 기록하였음. 26일에는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. 14일, 22~23일 및 26~27일에 동풍 영향으로 경북동해안지방에 눈이 내렸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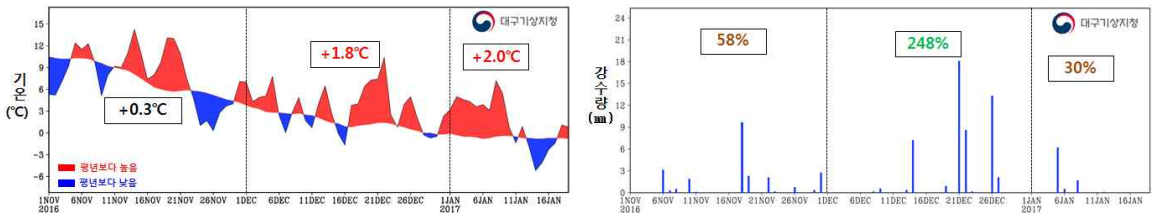
○ 1월 1일~19일

- 기온은 1.4℃로 평년(-0.6℃)보다 높았으며(편차 +2.0℃), 강수량은 8.5㎜로 평년(18.2㎜)보다 적었음(평년비 30%).
- [기온] 전반에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된 채 우리나라 북쪽으로 지나면서

그 가장자리에 들어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, 특히 8일에는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 최고기온이 1월 극값을 경신한 곳이 있었음. 후반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졌음.

- **[강수량]**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량이 매우 적어 대구·경북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음. 5일에 동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며, 8일에는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 의해 비가 내렸음. 12~14일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렸음.

○ **(최근 3개월, 2016.11.1.~2017.1.19)** 평균기온은 4.6℃로 평년(3.3℃)보다 1.3℃ 높았으며, 강수량은 84.3㎜로 평년(77.5㎜)대비 102%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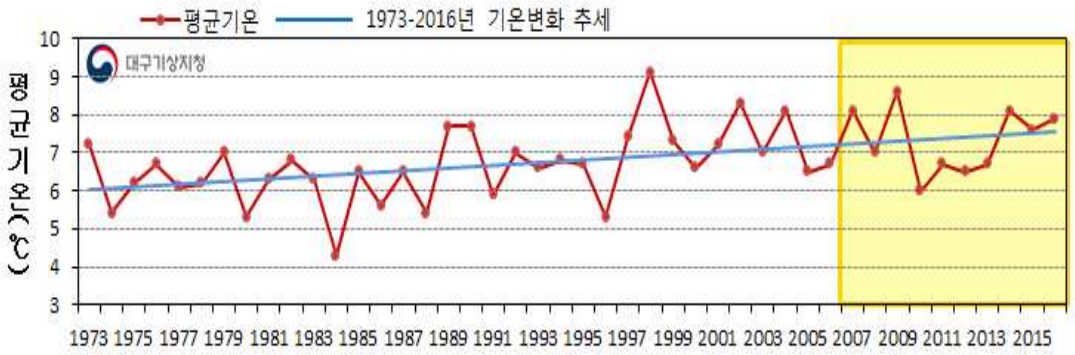


최근 3개월 평균기온(좌)과 강수량(우)의 일변화(2016.11.1.~2017.1.19)

첨부 2	최근 10년간의 대구·경북 기후 특성(2월~4월)

○ 기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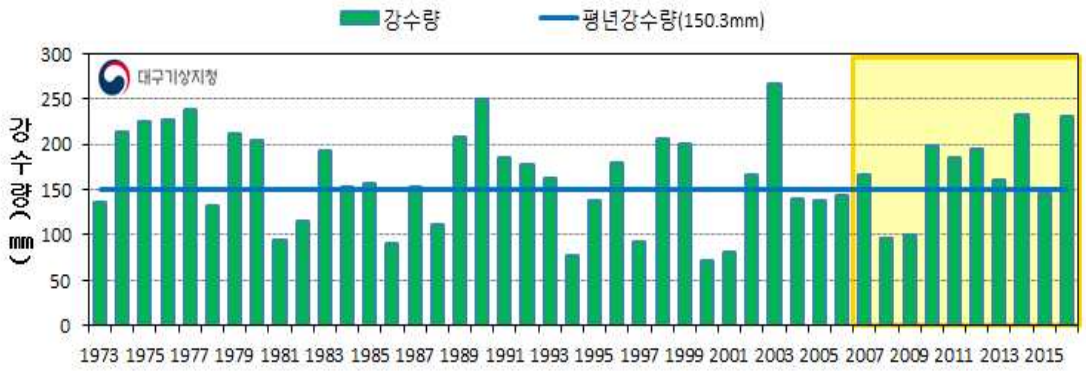
– 최근 10년(2007년~2016년) 평균기온은 7.3℃로 평년(6.8℃)보다 0.5℃ 높았음.



연도별(1973년~2016년) 평균기온(2월~4월)

○ 강수량

– 최근 10년(2007년~2016년) 강수량은 171.1㎜로 평년(150.3㎜)대비 114%를 기록하였음.



연도별(1973년~2016년) 강수량(2월~4월)

○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

기후 요소	단위	2월	3월	4월
평균기온(평년편차)	℃	2.2(+0.7)	6.9(+0.7)	12.5(-0.1)
평균 최고 / 최저 기온	℃	7.9 / -2.9	13.0 / 1.3	18.9 / 6.3
강수량 / 강수일수	㎜ / 일	32.9 / 6.0	58.4 / 8.3	79.9 / 9.1
일조시간	시간	170.9	202.8	206.0

※ 기온·강수량은 9개 지점(대구, 포항, 울진, 영주, 문경, 영덕, 의성, 구미, 영천) 평균임
※ 최근 10년 기간 : 2007년~2016년
※ 평년기간 : 1981년~2010년

첨부 3 | 최근 10년간의 대구·경북 특이 기상(2월~4월)

○ 고온 현상

- **(2016년 4월)**
  - 평균기온, 최저기온이 1973년이래 각각 최고 2위를 기록하였으며, 특히 26일에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된 가운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0℃안팎의 고온현상이 나타났음
    (**편차(℃)** : **평균기온** +1.2**[1위 1998년 +2.4], 평균 최저기온** +1.8**[1위 1998년 +3.7]**)
  -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
- **(2016년 2월 11일~13일)**
  -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, 특히 13일에 대구·경북 평균기온이 11.7℃로 평년(1.8℃)보다 9.9℃ 높았음
  -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었음
- **(2014년 3월)**
  - 평균기온, 평균 최고·최저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았으며,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3위, 4위, 5위를 기록하였음
    (**편차(℃)** : **평균기온** +1.7**[1위 2002년 +2.1], 평균 최고기온** +1.8**[1위 2013년 +2.7]**, **평균 최저기온** +1.3)
  - 중순 후반과 하순에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
- **(2013년 3월 1일~10일)**
  -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최고 1위, 2위를 기록하였으며, 9일에는 3월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한 곳이 많았음
    (**편차(℃)** : **평균기온** +3.1**[1위 1998년 +3.4], 평균 최고기온** +5.2**/일최고기온(℃) [3월 극값 1위] : 9일** 포항 26.9, 대구 26.9)
  -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았음
- **(2010년 2월 21일~28일)**
  - 평균기온,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
    (**편차(℃)** : **평균기온** +4.7, **평균 최고기온** +5.4)
  -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온난 다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었음
- **(2009년 2월 1일~10일)**
  - 평균기온, 평균 최고·최저기온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(**편차(℃)** : **평균기온** +5.1, **평균 최고기온** +5.3, **평균 최저기온** +5.0)
  -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음

- (**2008년 3월 11일~20일**)
  -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각각 두 번째로 높았으며,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℃이상 올랐음(**편차(℃)** : **평균기온** +2.7**[1위 2002년 +3.6], 평균 최고기온** +3.5**[1위 2002년 +4.6]**)
  -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음
  -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여름옷의 판매가 증가하였음
- **(2007년 2월)**
  -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 (**편차(℃)** : **평균기온** +3.1, **평균 최고기온** +3.7)
  -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이상고온이 나타났음
  - 영양염류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김생산량이 감소하고, 소나무와 잣나무 등의 상록수가 고사하였으며, 밭작물의 병충해가 증가하였음

○ 저온 현상

- **(2016년 2월 14일~15일)**
  -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날에 비해 평균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**(편차(℃) : 평균기온 13일** +9.9 ⇒ **15일** -4.7)
  - 경기도, 강원도,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었음
- **(2013년 4월)**
  -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 (**편차(℃)** : **평균 최저기온** -1.6**[1위 2010년 –1.7]**)
  - 상순 후반부터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자주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음
  - 개화기였던 배, 복숭아 등에 냉해 피해가 발생하였음
- **(2012년 2월)**
  -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남부지방까지 한파가 지속되었으며, 강원도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낮았음(**편차(℃)** : **평균 최저기온** –2.0/ **일최저기온(℃) [2월 극값 1위] : 2일** 문경 -17.0, 영덕 -13.7, **3일** 봉화 -27.7, 의성 -22.1)
  - 시설하우스 난방비의 상승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고, 대구와 오징어 등 어획량이 줄어 수산물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음
- **(2011년 3월~4월)**
  - 찬 대륙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까지 확장하여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음
  - 과수농가에서는 저온으로 냉해를 입었고, 작물의 수확시기 지연에 따른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며, 어민들은 제철어종의 어획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었음
- **(2010년 3월~4월)**
  -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낮았음(**편차(℃)** : **평균 최고기온** –2.8)

·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어 한기 유입이 잦았고, 남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음. 특히 일조량의 부족으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하였음
· 잦은 강수와 저온으로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하였음

○ **대설**

– **(2016년 2월 15일~16일)**
· 서울·경기와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
·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었음

– **(2014년 2월 6일~14일)**
· 동해안에 기록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**(최심신적설(㎝) : 10일** 포항 7.8**)**
·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배치가 형성되면서 동풍의 영향을 받았음

– **(2013년 3월 20일)**
·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
·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배치가 형성되면서 북동기류가 유입되어 많은 눈이 내렸음

– **(2011년 2월 10일~14일)**
· 동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음(**최심적설(㎝)** : **12일** 울진 65.7, **14일** 포항 27.5)
·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계를 보이면서 북동기류가 유입되는 가운데 남동쪽 해상의 저기압에 의한 남동기류가 합류되었음
· 교통이 통제되고 산간지역의 600여 가구 주민이 고립되었으며, 300여 곳의 농업 및 축산시설 붕괴 등 36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

– **(2010년 3월 17일~18일)**
· 충청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
·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해 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
· 쌓인 눈의 무게로 인해 전신주가 쓰러지고 눈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으나, 건조한 시기에 강수량이 공급되어 농사에는 도움이 되었음

– **(2010년 3월 6일~10일)**
· 6일~8일에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으며, 9일~10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(**최심적설(㎝)** : **10일** 포항 11.3)
· 6일~8일에 북고남저의 형태의 기압배치에서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으며, 9일~10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
· 눈 무게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가 컸고, 과수나무와

소나무 등이 부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

- **(2010년 2월 11일~16일)**
  -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음(**최심적설(㎝)** : **16일** 울진 28.6 등)
  - 대륙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
  - 도로 곳곳이 통제되어 설 연휴 귀성길이 혼잡을 빚었고, 스키장과 유원지도 설 특수를 누리지 못하였으며, 차량운행 제한으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음

○ **많은 비**

- **(2016년 2월 12일~13일)**
  -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,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
- **(2015년 4월)**
  - 강수일수가 관측 이래 가장 많았으며, 4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음(**강수일수(일)** : 14.1)
  - 전반에는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, 중반에는 저기압의 이동속도가 느려 비오는 날이 많았고, 후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
- **(2014년 4월 29일)**
  - 동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(**일강수량(㎜)[4월 극값 1위]** : 울진 180.4)
  - 하순 후반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이 일본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으로 인해 느리게 이동하여 27일~29일에 많은 비가 내렸음
- **(2011년 4월 30일)**
  -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
  -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다가와 많은 비가 내렸음

○ **황사**

- **(2016년 4월)**
  - 9일~10일, 14일에 우리나라 남부를 중심으로, 17일에는 서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, 22일~25일에는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었으며, 특히 23일~24일에 400$\mu g/m^3$ 안팎의 황사가 나타났음
  - 몽골과 내몽골 고원 및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

- **(2015년 3월)**
  - 1973년 이래 황사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음
    (**황사일수(일) :** 전국 5.5**[1위 2001년 9.9]**)
  - 내몽골에서 발원하여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어 황사가 자주 발생되었음
  -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교하였음
- **(2015년 2월 22일~23일)**
  - 22~23일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었음
  - 몽골남부와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대기하층의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황사가 나타났음